

# 킵보드 ‘헬멧 의무 착용’ 두 달… “근본적 제도 정비 필요”

공유킵보드업계, 이용자 수 감소  
헬멧 의무화에 사용자 소비심리 ↓  
“새 이동수단에 맞는 규정 마련해야”

정부가 안전이라는 좋은 취지로 킵보드 ‘헬멧 의무착용’ 카드를 꺼내든지 2달이 넘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신산업에 제동만 걸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보단 속도제한, 이동도로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일부 업체 ‘헬멧 부착’ 매출 증가…전체 시장은 ‘공공’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16세 이상 면허 보유자 대상 헬멧을 의무 착용하게 했다.

일부 공유 킵보드 업체는 이에 발 맞춰 ‘헬멧 마케팅’에 나섰다. 뉴런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뉴런모빌리티는 법 시행 후 곧바로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런모빌리티에 따르면 이용자가 강남에선 60%, 안산에서는 2배가량 늘었다.

하이킵과 알파카도 헬멧 홍보에 열을



시민들이 헬멧을 쓰고 공유킵보드 ‘알파카’를 타고 있다.

/알파카

올리고 있다. 하이킵을 운영하는 오랜 지점은 헬멧을 부착하기 전과 그 후의 데이터를 지난 1일에 공개했다. 헬멧을 부착한 주가 부착하기 전주보다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고 신규가입도 늘었다고 밝혔다.

알파카는 걸이형 헬멧과 함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헬멧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전동킵보

드 대여 시 사진을 찍어 알파카 앱으로 보내면 AI가 헬멧 착용 유무를 판별한다. 알파카에 따르면 시스템 도입으로 헬멧 착용율이 3%에서 6월 중순엔 30%로 올랐다.

헬멧 도입으로 이용자 수와 매출이 너도나도 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 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보면 연 초 줄곧 이용자 수가

상승세를 그렸던 공유킵보드 업계는 5월부터 한 풀 꺾였다. 지쿠터, 씽씽, 라임, 킵고잉 등에서 이용자 수가 줄었고 다른 업체들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 단속에 들어간 6월부터는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헬멧을 도입한 알파카는 이용자 순위가 7위에서 5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13만970명에서 11만1703명으로 14% 줄었다.

◆속도제한 줄이고 각종 규정 재정비해야  
알파카를 운영하는 진민수 매스아시아 이사는 “법 개정으로 청소년 모수가 줄고 헬멧 의무화에 사용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측면이 크다”면서 “헬멧 도입에 나름 동참하고 있지만, 강제보다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전동킵보드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동킵보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

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이동수단에 맞게 새롭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동 킵보드 안전사고는 단지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속도, 이동도로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교수는 “산업자원통상부 기준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는 속도를 25km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높은 기준”이라며 “15km 정도로 줄이고 차차 헬멧 착용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도와 차도에서 적절하게 전동킵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전동킵보드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속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인도에서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부 선진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도 조언했다.

/김순복 수습기자 sunbok@metroseoul.co.kr

## 집에서 즐기는 아트… 가전에 예술 더했다

프린팅·디스플레이 활용 등 협업  
해외에 국내 예술 홍보 효과 기대

가전과 예술 작품의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적인 예술 작품과의 협업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국내 예술 작품·갤러리와 협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다.

국내 가전 업체는 이 같은 협업이 문화예술계와 시너지는 물론 MZ세대 공략, 해외 소비자에 국내 예술 소개 계기 등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니아, 에어컨에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작품 프린팅

위니아닷컴은 지난 8일 국내 신진 일러스트레이터 3인의 작품을 그려 넣은 들레바람 에어컨 아트에디션을 출시했다. 문민지·김샘·싸비노 작가 등의 일러스트는 에어컨 전면부 바람창 2곳에 프린팅 됐다. 위니아닷컴은 작가들이 바람(hope)이 깃든 일상을 주제로 ▲열대야를 씻어줄 청량하면서 평온한 꿈의 세계 ▲바람 따라 유영하는 갈매기와 여성의 풍경 ▲서울역으로 표현한 과거와 미래의 공존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위니아닷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계 지원과 컬러 마케팅을 통한 MZ세대 공략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예술 작품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예술계와 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LG, 디스플레이 활용해 가전에서 K-아트 전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패밀리리브 냉장고 전용 비스포크아플리에를 공개했다. 패밀리리브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LG 올레드 TV 올레드 갤러리 앱 K-파인아트 테마에서 국내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

능 기술을 접목한 냉장고로 냉장고 문 전면 디스플레이가 설치돼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냉장고에서 비스포크아플리에 앱을 통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 비스포크아플리에에는 세계 명화뿐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와 갤러리의 특별 기획전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 장희진·정진경·김선우·이정은의 작품을 소개하는 서울의 취향 ▲가나아트와 협업해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색채의 대화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같은 협업이 “한국의 좋은 작품·신진 작가를 알리고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TV 가전제품인 더 프레임을 통해 아트 스토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소비자는 아트 스토어를 통해 세계 유명 박물관·미술관의 작품을 구독할 수 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TV 올레드 갤

러리 앱에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K-파인아트 테마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 콘텐츠 업체 폴스타아트와 협업했다.

폴스타아트는 ▲물방울 작가로 불리며 한국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은 감창열 작가 ▲한국 표현주의 미술의 대가이자 근현대사 모습을 작품에 담아낸 권순철 작가와 같은 국내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제공한다.

◆예술계 반색…“국내 예술 알리는 기회 될 것”

LG전자와 협업하는 폴스타아트는 이번 협업을 긍정적으로 봤다.

폴스타아트 관계자는 “국내 현대 미술에 대해서는 작가도 모르고 작품도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이번 협업을 통해 “국내 현대 미술 작품을 어렵지 않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해외 시장에 한국에도 고급문화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기대했다.

/한창대 수습기자 cd1@

## 롯데글로벌로지스 업계 최초 해외 ESG채권 발행

미화 3000만 달러 규모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업계 최초로 해외 ESG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15일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미화 30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340억원 규모의 ESG(지속가능) 채권을 3년 만기 사모채로 발행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월에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500억원 규모의 원화 ESG(녹색)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해외 ESG채권을 발행하며 업계 최초로 원화·외화 ESG채권 발행 기록을 세웠다.

회사가 확보한 ESG채권 자금은 ▲친환경 물류센터 구축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신규고용창출 등 ESG 관련

프로젝트에 전액 사용할 방침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해외 ESG채권 발행으로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했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ESG경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ESG채권 발행은 삼성증권이 금융 주선사로 참여했다. 특히, 롯데글로벌로지스는 BNP파리바증권과 SMB C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노르웨이의 DNV로부터 ESG 인증을 획득했다.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는 “확고한 ESG경영 체계 확립을 통해 회사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소상공인 생존 위협”

정부에 이의제기 예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앞두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미칠 후폭풍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

인상률 5.1% 산출 근거 ▲초법적으로 과도한 인상 수준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 4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값인 5.1%로 결정됐다.

경총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해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유독 올려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